등이 노력한 결실을 바탕으로 360년에 라오디게아회의에서 구약 39권과 신약 26권을 경전으로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에서 계속 배제돼 오던 묵시록이 제외되었다가 그후 칼티지회의(397년)에서 묵시록까지 받아들여기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어거스틴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전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인 지역은 물론 교회의 권위가 인정되는 지역에 국한되었습니다. 시리아 지방이나 동방 지역은 이 결정에 따르지 않고 맨 처음 경전 결정을 시도한 마르시온파도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후에도 교권(敎權)이 약화될 때마다 경전 구성에는 약간씩 이론(異論)이 있었지만, 애당초부터 경전화에는 민중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없었고, 교권의 주관(主觀)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전화되면서 그 해석권도 거의 자동적으로 교권이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2. 성서의 열쇠는 주머니 속에

교회가 조직화되고 그 당시의 정치체제에 따라 중앙집권제로 급진 전환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그중에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제국이 간헐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게 하였고,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교회의 조직을 강화시키는 역작용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각 지방에 흩어진 교회들이 통일성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그레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종교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아 신비주의 아니면 광신자로 빠지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리스도교의 이름 아래 실상은 전혀 다른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과 오류로부터 그리스도교를 지키기 위해 교회의 중앙집권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일찍부터 유대교의 유산을 받거나 헬레니즘내의 종교에서 종교의 계층적인 조직을 끌어들이어 ‘감독’을 정점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그것은 어떤 권위도 부여되지 않은, 사람에 따라서는 이름만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걱정하는 신도들 중에는 강력한 감독제를 실시해 교회의 지도력을 강화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높아져갔으며, 반면에 그러한 경향에 편승하여 교회의 권위를 확립하고 그 권좌에 앉으려는 상부의 책동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교회가 국가의 권력에 맞먹는 권력체로 자리를 굳힌 것은 이른바 콘스탄티누스 대제(大帝)의 그리스도교 보호정책 이후였습니다. 그는 로마황제 자리를 둘러싼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에 힘입어 승리한 후, 주후 313년에 그리스도교 박해 때 몰수했던 교회의 재산을 반환하고, 국가가 교회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성직자를 우대하여 국민적 의무를 면제할 뿐 아니라 교회내에서의 그들의 독자적 행위를 공인하는 등 사실상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로마제국의 국교(國敎)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로마제국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정도였는데, 그 세력은 대단하였습니다. 고위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우선권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회는 감독제를 격상시켜 법왕제(法王帝)로 만들

고, 그를 베드로의 후계자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그들은 마태오복음에서 예수의 말로 되어 있는 “너는 베드로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터인데, 죽음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6, 18~19)라는 구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마태오에 따르면 법왕은 하늘의 열쇠를 받은 대리자요, 땅 위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해결자라 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계승자로 자부하는 법왕의 일차적 관심사는 교권 장악이었습니다. 교권이란 교회의 제도를 관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왕은 교권 이전에 교회의 가르침, 구체적으로는 성서해석의 열쇠를 독점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른바 법왕의 무오설(無誤說)도 창안해내었습니다. 법왕의 무오설에 따르면, 법왕의 판단에는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성서해석에도 착오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성서를 바탕으로 한 그의 가르침에 가감(加減)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사제들의 위치도 자동적으로 결정된 셈입니다. 사제는 법왕의 손발로서 그의 권위 밑에서 교회를 치리(治理)하고 성서를 풀이할 수 있는 전권(全權)을 분담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들 외에 어떤 평신도도 성서를 풀이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례전의 집행권도 사제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례전들도 성서에 기초한 법왕의 지시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흘러 사회가 변동하였습니다. 그러니 성서의 문자만 가지고 현실생활을 규제해나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왕의 이름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교시(敎示)가

계속되어야 했으며, 그것은 신도에게는 사실상 성서 자체보다 더 큰 비중을 갖도록 강요되었습니다.

또한 사실상 사제계층이 성서해석의 열쇠만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서 자체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까닭은 이러합니다. 성서 원문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희랍어로 되어 있었으며, 사제계층은 그것을 번역한 라틴어 성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일반 민중이 그런 고대어를 읽을 수도 없었거니와 일반에게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사제들의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신도를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성서를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그것을 교본삼아 신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발췌한 내용이 성서의 전체 맥락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또 성서는 구약만 39권, 신약이 27권인데, 그것이 씌어진 시대도 다르고 각 책들의 성향도 달랐습니다. 신도들은 그 책들의 비중을 가려 낼 아무런 기준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남는 것은 교권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이변(異變)이 일어났습니다. 성서의 원문을 접할 수 있는 사제들 중의 일부 또는 평신도이면서 이에 접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교권에 의해서 해석된 것과 다르게 풀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교권으로부터의 탈출을 암중모색하고 있는 신도들에게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권은 이런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이단으로 규정하고, 심하게는 사탄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씌워 극형에 처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성서 자체가 아니라 과학적인 측면에서 성서에서 지시한 것과 다른 세계관을 발설해도 처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가 우주를 평면적 삼층구조(三層構造)로 이해한 성서의 우주관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얼마나 가혹한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렇듯

교권의 절대권위는 성서의 문자풀이에만 국한하지 않고 세계를 이해하는 모든 철학이나 사상과 상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처형됐는지 모릅니다.

교권은 그들의 해석권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것은 성서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란 문자에 나타난 그대로가 아니라 그 문자가 구체적인 어떤 것을 상징한다는 주장입니다. 그중에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이며 성서의 경전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어거스틴의 성서해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루카복음에만 있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 반쯤 죽어 있었습니다. 그 앞을 제사장, 레위 사람이 지나갔으나 그를 돕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 감람유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말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음날 그는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줄 것을 당부하면서 혹시 그 돈이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은 낙원이다. 예리고는 지옥이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인간 일반이다. 반쯤 죽었다는 것은 인간이 범죄로 해서 완전히 자기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를 살릴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다. 말에서 내렸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 왔다는 뜻이다. 기름을 붓고 술을 붓고 싸맸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를 말한다. 데려다준 여관은 교회를 의미한다. 다시 오겠다는 것은 재림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의적인 풀이를 할 권리가 교회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다보면 성서를 얼마든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제계층은 1천여 년 동안에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을 독점했는데, 그 해독은 현재 오늘의 한국 교회에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알레고리적 해석은 성서 자체가 말하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성서의 권위를 빌리는 행위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의적 해석권은 교회만이 독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내세운 최대한의 덕목은 ‘복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은 ‘영적(靈的)인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성서가 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자 뒤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비로소 성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해석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한데, 바로 그 눈은 법왕을 정점으로 하는 사제들만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들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척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단순한 궤변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경전형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리게네스’는 성서해석 방법을 3가지로 구별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그것을 종합하는 정신이 있는 것처럼 성서도 자의적(恣意的)인 것이 있고, 그 문자 배후에 도덕적인 것이 있으며, 이것을 종합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창세기 35장 22절의 “르우벤이 아버지의 소실을 범하였는데”라는 구절

을 보면 우선 그 자의적 의미는, 르우벤이 실제로 아버지의 소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며, 두 번째 해석으로는 르우벤은 인간의 도덕법을 위반한 패륜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 해석으로는 르우벤을 하느님의 장자로 해석하고 그의 범죄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가 바로 영적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레고리적 영적 해석권은 성서의 역사적 연구에 바탕을 두지 않고 교의적(敎義的)·사변적(思辨的) 근거 위에서 해석된 결과입니다. 거기에는 성서 자체가 본래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교회의 질서를 지키거나 신자들의 생활을 통솔하려는 지배의지(支配意志)가 앞서서 성서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영적인 해석’이 판을 친 중세기의 평신도들은 자기의 판단력을 완전 제거할 때만이 교회인(敎會人)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양상은 말 못하는 어린애가 그 어머니가 먹여주는 것을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말 못하는 어린아이도 쓰면 뱉어내어 싫은 것을 거부할 권한이 있었으나 당시 민중들에게는 그런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니다.

3. 성서의 전승을 위한 노력들

이제 그 오래 된 글들이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전승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역사와 해석』이라는 책 머리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전들이 우리 손에까지 전승된 사실이 얼마나 신비하고 경이스러운 일인가를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살아남은 데는 무엇보다도 까마득한